

## May 04 이거 놓고 싸운다

• 사사기 1:19

**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.** 그러나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. 전쟁을 통해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. 이는 가나안 정복 과정을 통해 지휘관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.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분의 약속 안에서 옛 삶의 방식, 즉 죄의 습관을 버리고, 믿음의 군사로 거듭나길 원하셨습니다.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 땅에 ‘하나님 나라’를 건설하려 하셨습니다.

**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.** 하나님은 분명 유다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(삿 1:2). 그러나 유다 자손은 두 번의 전쟁에서 1승 1패의 상반된 결과를 얻었습니다.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전쟁에 임했을 때는 승리했지만, 적의 철 병거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. 적의 기세와 자신들의 무력함에 눌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.

**한계를 넘어서는 순간, 계산은 소용없습니다.**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.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방향을 향해 힘써 전진해야 합니다.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힘써 반응해야 합니다.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싸울 수 있습니다. 때로 상황과 문제에 압도되어 동력 자체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영적 겹쟁이가 되어 전쟁을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. 전투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할 수 없습니다.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시고, 전진하라고 명령하십니다.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.

---

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 
신뢰합니까?

- ❶ 나에게 약속하신 땅(승리)은 무엇입니까?
- ❷ 나를 주저하게 만드는 적의 무기는 무엇입니까?